

비정한 부모들... 자녀 생명 경시 잇단 참극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리고 찾김에 딸 목졸라

부모 가정불화·우울증·스트레스에 동반자살 충격

가정불화,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동반자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경찰은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여·3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북이면 자신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심이 얇은 연못으로 아들을 떠밀었다가 곧바로 집안 욕조에 데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장생활을 그만둔 뒤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숨진 아들 외에도 8살과 4살된 딸을 키우며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나주시 금천면 자신의 주택에서 10개월된 딸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B(여·33)씨가 구속됐다.

B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한 남편이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아 TV를 보고 있는데, 딸이 잠에서 깨 울었다"며 "찾김에 때리기는 했지만 설마 죽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린 딸을 질식사시켜 살해한 혐의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C(여·38)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한 교회에서 자신의 딸(2)을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

살해, 30분 뒤 아들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딸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C씨는 5년 전 첫째 아들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남편과 다툼을 벌인 뒤 정처없이 걸던 중 남편

을 낳은 딸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적 갈등이 맞물리면 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기능의 회복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자신의 고통을 몰려주고 싶지 않다는 동기가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어 그릇된 모성을 바로잡는데 가족은 물론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는 광주가 21건·전남 101건 등 총 11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존속폭행 56건 ▲존속상해 33건 ▲존속협박 6건 ▲존속살인 5건 ▲존속상해치사 3건 등으로 집계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평촌마을 주민들이 농악대를 꾸려 마을 어귀를 돌며 악구와 잡신을 물리치고 풍작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람회' 피해자 전원 국가배상 못받아

<5·18유인물 배포 국보법 위반 구속>

대법, 박해전씨등 6명 소송 각하

광주민중화해위원회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잇따른 패소 판결로 이 사건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 5명은 광주민중화해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아람회 사건'이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은 뒤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피해자들이 수감되거나 파면돼 얻지 못한 수입을 산정하고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19억2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2심은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중화해보

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2심은 보상법이 광주민중화해운동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것'으로 한정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사망' 등으로 규정해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람회 사건'이 1980년 말에 일어난 데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 등이 입은 피해는 법률상 광주민중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가 맞다"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현재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집유 선고 남성, 첫 재심 청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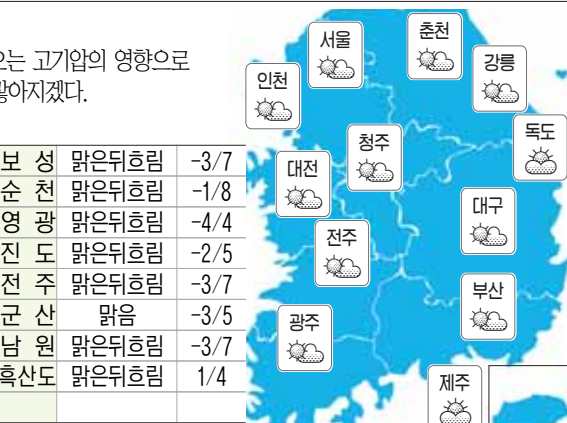
해돋이 06:58 달뜨기 18:11
해질 18:31 달지기 06:24

'부담내기' 하셨나요?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은구름	-3/8
목포	맑은구름	-2/5
여수	맑은구름	-1/7
나주	맑은구름	-4/8
완도	맑은구름	-2/8
구례	맑은구름	-4/8
강진	맑은구름	-3/8
해남	맑은구름	-3/7
장성	맑은구름	-4/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부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서부	북~북동	1.5~2.5	북~북동	1.0~2.0
남해(서)	북~북동	1.5~3.0	북~북동	1.0~2.0

◇생활지수

수면	40
운동	40
빨래	90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	☁	☁	☁	☁	☁	☁
-2/11	1/13	1/14	3/10	-1/8	-2/9	-1/12

“광주시민 ‘線남線녀’ 됩시다”

U대회 앞두고 교통질서 지키기 아이디어 백출

광주경찰청, 선진교통문화 우수 시책 경진대회

어떻게 하면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건너는 길이 모두 횡단보도요. 멈추는 곳은 모두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질서한 광주의 교통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

광주 경찰들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필요한 교통 정책과 관련, 현장 활동을 벌이다가 떠오른 31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차선 지키기·안전띠 매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11건) ▲신고 포상제(9건) ▲요금 미터기 신설 등 불법주·정차 방지(4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의견도 다양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한 지점에 국화꽃을 놓자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블랙박스를 활용,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 현장 영상을 공익 광고로 만들자는 방안 등 신호·과속 운전 등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의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무질서 신고를 전담하는 '신고해' 카카오톡을 개설해 시민 신고를 활성화시켜 교통문화를 확립하자는 방안이나 최근 떠오르고 있는 '드론'을 교통 단속에 도입하자는 '파격적(?)인 안도 제시됐다. 웃을 포인트로 불리는 '스마일리지' 제도를 추진, 준법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구상을 내놓는 경찰도 있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전자 생명포켓' 캠페인이나, 주·정차선,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교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선(線)남선(線)녀' 캠페인도 호응도가 높았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아이디어가 제시된 '선진교통문화 확립 우수 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광주청 경비교통과 유노준 경사가 제안한 '광주시민 선(線)남·선(線)녀 되기 캠페인'에 대해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2000만 호남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

